

Research Center

2016년 10월 12일

# 투자전략 Daily

## • 이슈분석

미국 대선 catch-up : 토론회와 클린턴

## • 중화권 증시 동향

국경절 이후 중국 증시 강세 지속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유니트론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 • 산업분석

의류 OEM, 항공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향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철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종 ☎ 3276-6184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5(수)	10/6(목)	10/7(금)	10/10(월)	10/11(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3.00	2,065.30	2,053.80	2,056.82	2,031.93	
	등락폭	-1.86	12.3	-11.5	3.02	-24.89	
	등락종목	상승(상한)	347(2)	348(2)	199(2)	451(0)	391(0)
		하락(하한)	446(0)	448(0)	611(0)	357(0)	408(0)
	ADR	97.26	94.02	86.63	88.97	90.91	
	이격도	10 일	100.03	100.49	99.91	100.04	98.91
		20 일	100.43	100.97	100.42	100.59	99.45
	투자심리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92	338	422	315	340
	거래대금	(십억 원)	4,330	5,358	5,403	4,667	5,128
코스닥	코스닥지수	685.44	684.33	675.90	674.74	670.64	
	등락폭	-0.44	-1.11	-8.43	-1.16	-4.1	
	등락종목	상승(상한)	532(3)	542(3)	298(2)	472(2)	410(1)
		하락(하한)	540(0)	533(0)	797(0)	602(0)	673(0)
	ADR	99.23	99.08	97.88	97.74	97.17	
	이격도	10 일	99.98	99.73	98.63	98.66	98.30
		20 일	101.17	100.95	99.73	99.59	99.00
	투자심리	60	5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587	641	703	644	640
	거래대금	(십억 원)	2,976	3,161	3,484	2,949	3,313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79.1	1,475.5	1,440.8	792.2	104.1	180.6	85.1	15.8	263.0	37.8
	매도	2,333.5	1,812.3	947.3	237.4	98.8	213.6	77.7	12.2	307.7	40.2
	순매수	-154.4	-336.7	493.5	554.9	5.3	-33.0	7.4	3.6	-44.7	-2.4
	10월 누계	-204.6	-71.6	232.6	470.2	-26.4	-149.2	102.0	-23.6	-140.3	43.6
	16년 누계	-5,496.7	9,709.7	-7,617.7	-1,669.1	681.1	-5,732.1	-896.9	-995.5	995.2	3,404.6
코스닥	매수	3,049.5	162.2	80.0	32.7	7.2	12.8	11.4	1.1	14.9	17.6
	매도	2,985.2	173.9	126.7	34.0	13.8	31.3	15.9	1.5	30.1	23.6
	순매수	64.3	-11.7	-46.6	-1.3	-6.6	-18.5	-4.6	-0.4	-15.2	-5.9
	10월 누계	156.1	77.1	-195.8	-39.0	-13.5	-71.0	-25.5	-2.7	-44.2	-37.5
	16년 누계	5,295.1	979.6	-4,336.6	-604.8	-287.0	-1,480.5	-638.6	-149.7	-1,176.2	-1,938.0

## 미국 대선 catch-up : 토론회와 클린턴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18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8.5%P

- ▶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 위기를 모면한 트럼프. 그러나 대세는 클린턴
- ▶ 1, 2차 토론회의 중요 쟁점들 : 경제, 조세, 대외 관계 등
- ▶ 클린턴 행정부 예상 수혜 업종 : 태양광, IoT

### ■ 2차 토론회 : 트럼프, 최악의 위기를 모면했으나 여전히 클린턴의 우세

지난 9월 26일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의 1995년 소득 신고서의 공개로 소득세 회피 논란이 불거진데다 음담패설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당 중진 인사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했고, 러닝 메이트인 마이크 펜스마저 공동 유세를 취소할 정도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가운데 시작한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와 달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인 타운홀 방식으로 치뤄졌다. 하지만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정책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트럼프는 본인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대화(a locker-talk)이라고 일단락하며, 빌 클린턴의 과거 성추문 스캔들로 시선을 돌리고자 했다. 또한 클린턴을 ‘악마’로 지칭하며 본인이 당선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해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언도 했다. 클린턴 역시 트럼프의 녹취록과 과거 인종차별 발언 등을 들어 후보로서 부적합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토론 직후 CNN 등 다수 언론은 ‘진흙탕 싸움(mudfight)으로 전락한 역대 최악의 토론회’고 평했지만, 상대적으로 조리있게 토론회를 이끌어갔던 클린턴의 손을 들어줬다. 토론회 중 멕시코 폐소가 장중 1% 이상 급등한 반면 금은 하락했는데, 이 역시 시장 투자자들이 클린턴의 우세를 인지한 지표(indicator)로 볼 수 있다.

[그림 1] 2차 토론회 중 멕시코 달러 상승과 금값 하락



주 : 좌측이 멕시코페소/달러, 우측이 금 가격. 5분봉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1,2차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쟁점들 : 경제, 조세, 대외 관계 등

미국에서는 보통 TV 토론회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남은 선거기간 동안 주도권을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 토론회를 중요시 여긴다. 더구나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해온 만큼 언론과 시장은 두 후보가 벌일 논쟁에 대해 주목했다. 하지만 1,2차 토론회 모두 서로의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토론회의 중심은 후보들의 개인적인 스캔들 등 치부를 공격하는데 옮겨간 모습이었다.

다만 진흙탕 싸움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정당의 정책에 대한 언급을 놓치지 않았다. 두 정당의 성격이 극명히 다른 만큼 경제, 조세, 안보 등에 전 분야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클린턴이 토론회 내내 ‘계층 간소득 불평등 개선’, ‘인종차별 없는 사회’, ‘종교의 자유’, ‘큰 정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보다 ‘정치적인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sup>1</sup>에 입각한 공약들을 언급했다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고립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했다.

<표 1> 두 후보들의 1,2차 토론회 중 언급된 공약 및 발언 정리

주제	클린턴	트럼프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인구는 전세계 5%고, 따라서 다른 95%와의 교역은 필수적</li> <li>- 나는 CAFTA에 반대하는 등 맹목적인 무역 협정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멕시코 등에 생산기지와 일자리를 빼앗겨서는 안됨</li> <li>- 미국 기업이라도 해외로 생산/연구기지를 옮길 경우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li> </ul>
조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의 조세 정책은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li> <li>- 낙수 효과는 날조된 사실 (Trumped-up, trickle-dow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상위층과 기업의 세금 감면은 부(富)가 다른 소득 계층으로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할 것</li> <li>- 성공보수(carried interest) 폐지</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 임금 인상</li> <li>- 임금 지불에 있어 성(性)평등 추구</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등록금 수준 현실화</li> </ul>	
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21세기 신재생에너지 슈퍼 파워가 되어야 함</li> <li>- 에너지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것</li> <li>- 기존 석탄 생산 지역에 대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환경보호국은 과도한 규제에 에너지 기업들을 죽이고 있음</li> <li>-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가 주 에너지 공급원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활성화 시킬 것</li> </ul>
국제 문제 해결에서의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 동맹과의 협력은 필수적</li> <li>- 시리아 문제 해결에 특수부대 투입</li> <li>- 쿠르드족 무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O, 한국, 일본 등 국가는 그들 몫의 방위 부담금을 부담해야</li> <li>- IS 격퇴를 위해서는 시리아 정부나 이란과 협력해야 함</li> </ul>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A(오바마케어) 덕에 2천만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 받음.</li> <li>- 따라서 없애기보다는 보험 비용 축소 등으로 단점 보완해 나갈 것</li> <li>- 현재 의료보험은 미국인의 90%에 적용되는데 이를 100%로 올릴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바마케어는 재앙. 전면 폐지해야</li> <li>- 건강보험의 주(州)별 경계 폐지</li> <li>- 건강보험 시장 내 경쟁 도입</li> <li>- 연방 정부에서 주별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li> </ul>
미국인 무슬림에 대한 인식 (Islamopho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슬림들과 미국 내 안보 강화 뿐만 아니라 ISIS 격퇴 등의 문제 등에서도 협력해야 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슬림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li> <li>- 급진적 이슬람 테러(Radical Islamic terro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li> </ul>
시리아 난민 유입 및 이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가치인 종교적 자유를 고려했을 때 난민들의 종교를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바마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입국 허가를 해주는 시리아 난민들은 미국 내에서 트로이 목마 역할 가능성</li> <li>- 이민자수 증가는 국가 내 범죄율을 증가시킴</li> </ul>

자료: 한국투자증권 정리

<sup>1</sup> 정치적 올바름이란 공식 석상에서 인종, 민족,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된 언어나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표현하는 단어다. 다만 이는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소수 인종까지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위선으로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가 애초에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도 공식 석상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클린턴 행정부의 수혜 업종 - 태양광, IoT**

경합주에서도 클린턴 우세

여전히 19일 3차 토론회를 앞두고 있어 단정하긴 이르지만, 여론조사는 예전보다 더욱 클린턴에게 기울어 가는 모습이다. 1차 토론 이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소위 경합주(Swing States)로 구분되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주에서도 클린턴의 우위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그 중 오하이오는 1970년대 이후 대선 당선자들이 필연적으로 승리해왔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진 주인데, 최근까지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토론회 전후로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소폭이지만 클린턴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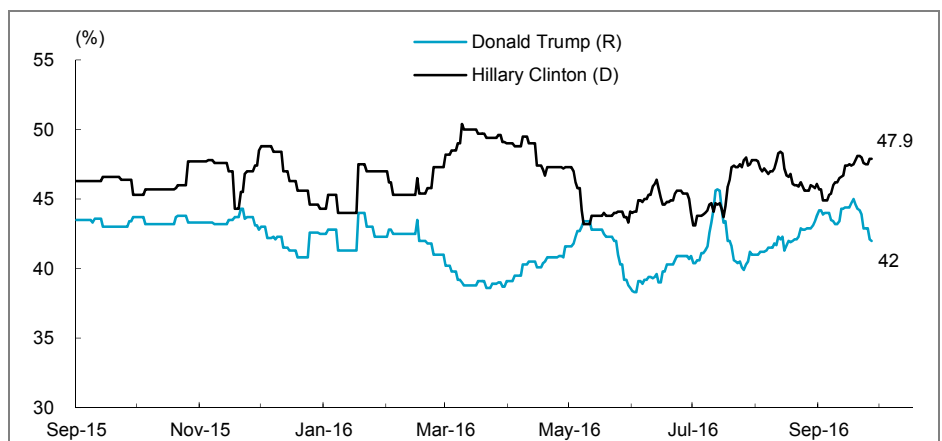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공화당 진영도 전략을 바꾸는 모습이 관찰됐다. 공화당 내 1인자이자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은 트럼프 녹취록 공개 이후 상, 하원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화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음담패설 녹음 파일 공개 이후에도 변함없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요원하다. 하지만 여전히 큰 선거를 앞두고 당 내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당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표 2> 경합 주(Swing State)의 지지 정당 : 설문조사 및 역대 선거 결과

	대선 여론 조사	대의원 수	상원 소속 정당	92년 이후 대선 (총 6회)	
				공화당	민주당
네바다	클린턴 (+1.0%)	6	민주 1, 공화 1	2	4
애리조나	트럼프 (+1.0%)	11	공화 2	5	1
콜로라도	클린턴 (+7.3%)	9	민주 1, 공화 1	3	3
아이오와	트럼프 (+3.7%)	6	공화 2	1	5
미시건	클린턴 (+7.0%)	16	민주 2	0	6
뉴햄프셔	클린턴 (+6.0%)	4	민주 1, 공화 1	1	5
펜실베이니아	클린턴 (+8.6%)	20	민주 1, 공화 1	0	6
오하이오	클린턴 (+0.5%)	18	민주 1, 공화 1	2	4
버지니아	클린턴 (+7.5%)	13	민주 2	4	2
노스캐롤라이나	클린턴 (+2.6%)	15	공화 2	5	1
조지아	트럼프 (+5.0%)	16	공화 2	6	0
플로리다	클린턴 (+2.4%)	29	민주 1, 공화 1	3	3

주 : 여론조사 결과는 RealClearPolitics가 집계한 평균의 최근 값. ()안 수치는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  
 자료: RealClearPolitics, 한국투자증권 정리

[그림 2]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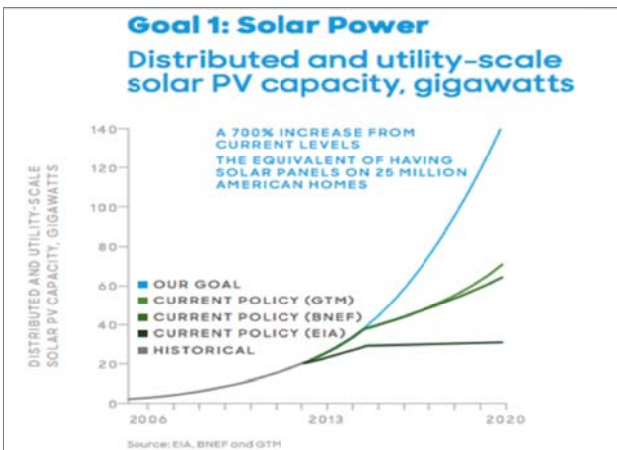
자료: RealClearPolitics,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클린턴이 선거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면서 클린턴 당선시 예상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6일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2)-뉴딜 2.0’ 자료에서 이미 대선 이후 당선자와 무관한 수혜 업종으로 인프라 관련 업종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친환경 에너지와 IoT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친환경 에너지 - 태양광 주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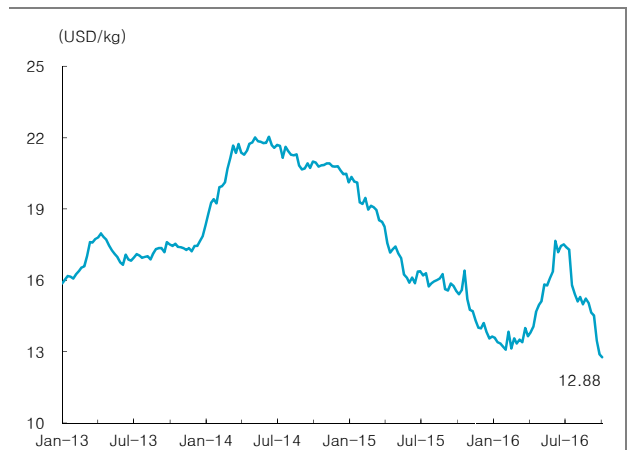
정강이나 1,2차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클린턴은 환경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인프라 투자, 산업 구조 변경,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공약에서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인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기 재임 기간 중 5억개의 태양광 패널 보급을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 수요 확대는 원료인 폴리실리콘부터 태양광 셀, 모듈 관련 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미국 신재생에너지 예상 시장 성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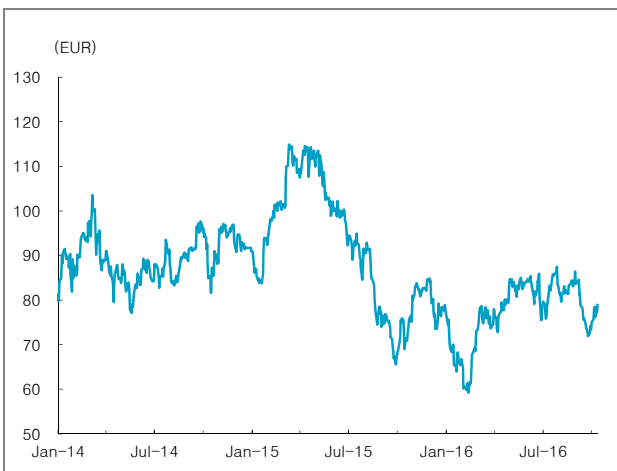
자료 : EIA, Hillaryclinton.com

[그림 4]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바커 케미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솔라시티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미국 태양광 관련주

(단위: USD mn, 배)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12MF PE	12MF PB
			2015A	2016F	2015A	2016F		
3800 hk equity	GCL-Poly Energy Holdings	2,588	21,766	23,985	4,496	2,536	n/a	n/a
wch gy equity	Wacker Chemie	4,897	5,296	5,504	133	154	n/a	n/a
fslr us equity	First Solar Inc	3,908	3,579	3,871	517	434	13.4	0.7
scty us equity	SolarCity Corp	1,853	400	696	-648	-951	n/a	n/a

주: 10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정리

〈표 4〉 국내 태양광 관련주

(단위: 원, 억원, 원, 배)

종목코드	종목명	수정주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12MF PE	12MF PB
				2015A	2016F	2015A	2016F		
A009830	한화케미칼	25,200	41,532	80,370	91,925	3,370	8,131	6.1	0.7
A000880	한화	35,750	26,798	413,763	450,871	7,585	16,118	6.2	0.6
A010060	OCI	95,900	22,872	23,015	28,798	-1,446	1,914	12.2	0.7
A011930	신성솔라에너지	2,785	2,800	1,706	2,480	76	140	17.2	2.9
A066570	LG 전자	50,900	83,297	565,090	549,682	11,923	16,610	10.5	0.7

주: 10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정리

**디지털 인프라 - IoT 환경 구축**

IoT 역시 클린턴의 정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분야다. 클린턴의 2,7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의 구체적 목표 중 하나가 IoT 환경 구축 등이 있다. 관련 정책으로는 1) IoT 환경의 기반이 될 5G 환경 및 차세대 무선 시스템 구축, 2) 차세대 기술 적용을 위한 스펙트럼 라이선스 재배치 및 공유 확대, 3) 도로, 항만, 공항, 수로 등 모든 인프라가 IoT 환경에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시티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이미 2008년 IoT를 2025년 국가 경쟁력에 미칠 6대 기술로 지정하고, 의회조사국(CRS)에서 IoT 산업 보고서를 내는 등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만큼 관련 수혜주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있다. IoT 환경 구축 관련 기술과 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온 알파벳(GOOGLE), 오라클(ORCL), 아마존(AMZN) 등이 이에 속한다.

더불어 IoT 환경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마이크론(MU), 인텔(INTC), IBM 등역시 관련 수혜주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NVDA)는 자율주행차 전용 초소형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공개하는 등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시스템반도체 기술력 확보로 주가가 연초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외에도 IoT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수적인만큼 관련주인 팔로 알토 네트워크(PANW), 시만텍(SYMC) 등에 주목할 만하다.

〈표 5〉 미국 IoT 관련주

(단위: USD mn, 배)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12MF PE	12MF PB
			2015A	2016F	2015A	2016F		
intc us equity	Intel Corp	179,873	58,448	60,813	12,718	13,813	13.5	2.8
googl us equity	Alphabet Inc	549,169	72,685	84,256	23,664	28,214	21.9	4.1
symc us equity	Symantec Corp	15,716	4,100	4,530	689	1,001	20.6	4.3
orcl us equity	Oracle Corp	158,560	37,608	38,593	10,981	11,676	14.2	3.4
amzn us equity	Amazon.com Inc	399,032	136,822	167,481	5,301	7,912	63.9	25.5
nvda us equity	NVIDIA Corp	35,899	6,116	6,541	1,381	1,345	27.7	7.7
panw us equity	Palo Alto Networks Inc	14,512	1,840	2,373	263	374	56.6	18.0
ibm us equity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150,087	79,607	79,337	12,914	13,060	11.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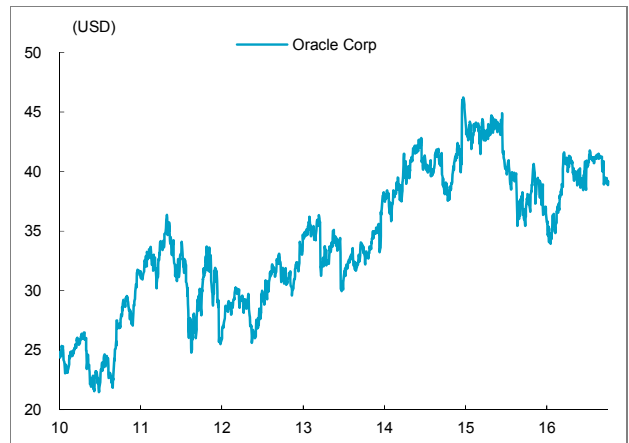
주: 10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정리

[그림 7] 아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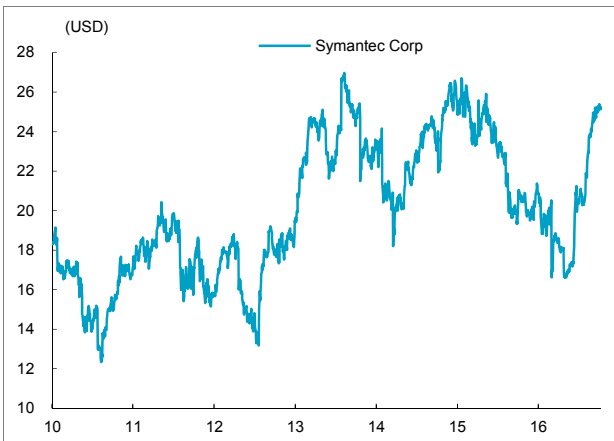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그림 8] 오라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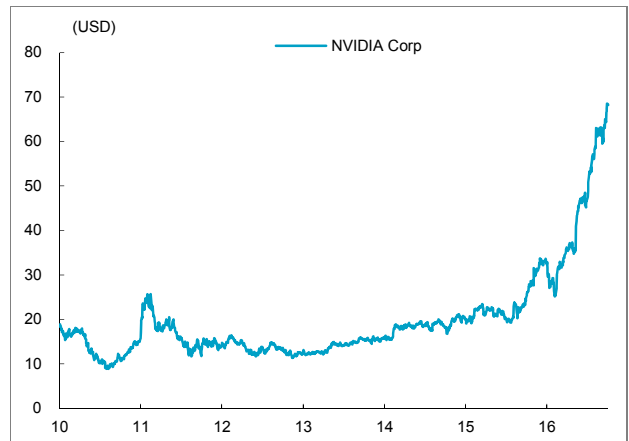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그림 9] 시만텍



자료 : Bloomberg

[그림 10] 엔비디아



자료 : Bloomberg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국경절 이후 중국 증시 강세 지속

- ▶ 상해종합지수 0.6% 상승, 혼합소유제 개혁 및 구조조정 가속화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호재
- ▶ 홍콩H지수 1.2% 반락,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 악재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6% 상승,  
통신, 선박, 신택, 철강,  
제지, 석탄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6% 상승한 3,065p로 마감하며 직전일의 강세를 이어갔다. 소폭 상승 출발한 시장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도 1,838억위안으로 직전일의 1,755억위안보다 소폭 늘었다. 중국 정부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이나 유니콤 A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통신업도 덩달아 8% 이상 급등했다. 또한 국무원이 상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하며 철강, 조선 등 업종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연초에 논의되었던 출자전환 시장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기대감이 부각됐고 신택기관들의 사업 확대 기대감에 상승했다. 한편 위안화 환율이 시장 기대 마지노선인 6.7달러/위안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 마감했던 가운데 통신(+8.8%), 선박(+4.8%), 신택(+2.8%), 철강(+1.8%), 제지(+1.6%), 석탄(+1.2%)의 상승폭이 뚜렷했다. 한편 국경절 연휴 이후 처음 재개된 후강통 거래는 첫 거래일에 순매수세 유입으로 마감했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2% 반락,  
부동산, 전자재, 유틸리티,  
금융 등의 업종 약세

중양절 연휴 이후 개장한 홍콩H지수는 1.2% 반락한 9,804p로 마감했다. 직전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OPEC산유국들의 감산 지지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0,000p를 상회하며 출발한 증시는 오전장에 약세 전환 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본토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과 전자재 기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그 외에도 유틸리티, 금융, 헬스케어 등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판매량이 호조를 보인 자동차와 정책 기대감이 부각된 통신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0/11(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065.25	0.56	2.24	-0.44	-13.39
심천종합	2,043.69	0.51	3.15	0.43	-11.49
차스닥	2,210.86	0.11	3.27	0.36	-18.54
홍콩H	9,804.47	-1.20	1.25	-2.52	1.50
Shibor 7일물 금리(% , %p)	2.39	-0.66	-3.35	0.74	1.66
Shibor 1개월 금리(% , %p)	2.72	-0.26	-0.84	1.53	-9.46
중국국채 3년물(% , %p)	2.37	0.32	-0.61	-1.74	-7.61
위안/달러 고시환율	6.7098	0.13	0.48	0.62	3.33
역내 위안/달러	6.7165	-0.13	-0.67	-0.54	-3.32
역외 위안/달러	6.7222	-0.08	-0.42	-0.55	-2.29

주: 11일 오후 6시 2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코스피, 갤럭시7 생산 및 판매 중단 충격 속 외국인의 공격적인 현선물 동시 매도세로 약세

- 미국시장이 대선 TV토론 결과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우세했다는 평가 속에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반전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의 공격적인 현선물 동시 매도세와 삼성전자의 갤럭시7 생산 및 판매중단 소식 등으로 2,030P선까지 후퇴.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시장은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로 670P선을 위협하는 약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7 사태로 급락하며 삼성그룹주를 비롯해 파트론, 비에이치, 인터플렉스 등 관련 부품주들이 약세를 주도. 반면, 갤럭시7 파문으로 LG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며 이틀째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갔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주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수주 기대감이 더해지며 동반 상승세를 보임. 유가 급등 소식에 S-Oil, 롯데케미칼 등 정유화학주가 동반 상승했고, 4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포스코대우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감. 신세계인터내셔널은 3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으며, '휴텍스 100단위'의 수출 허가 소식에 휴온스글로벌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수산아이앤티가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상한가로 치솟았고, 태림포장은 770억 규모의 계열사 사업 양수 소식에 급등세를 보임. 또한 노르웨이 제약사와 혈액암 신약을 공동개발한다는 소식에 레고켐바이오가 급등세를 보였고, 장기적인 외형 성장성이 부각되며 무학이 강세를 나타냄.

종목/테마	내 용
신세계인터내셔널(031430) ▶82,800(+7.67%)	3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강세 - 브랜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등으로 3분기 흑자전환 할 것이라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 해외 패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브랜드 비중이 축소된데다 라이프스타일 사업 쪽에서 컨설팅 비용 지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개선
휴온스글로벌(084110) ▶48,200(+7.47%)	'휴텍스 100단위'의 수출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세 - 식약처로부터 미간주름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휴텍스 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의 수출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세 - 전 세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미간주름 등의 미용목적과 치료용 목적의 수요 증가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
태림포장(011280) ▶3,550(+14.52%)	770억 규모의 계열사 사업 양수 소식에 초강세 - 770억 규모의 계열사 사업을 양수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태림페이퍼 파주공장 골판지상자 및 원단 사업일체(양수가액 173억7000만원)와 월산페이퍼의 청원공장 과 마산2공장 골판지상자 및 원단 사업일체(양수가액 597억원)를 양수한다고 공시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손오공(066910) ▶8,400(+19.32%)	- 글로벌 완구회사인 마텔이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하이셀(066980) ▶1,705(+14.43%)	- 콘텐츠 비즈니스 업체 리치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 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유니트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유니트론텍 (142210)	38,800 (+47.5)	26,300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li> <li>-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li> </ul>
큐리언트 (115180)	39,900 (-14.4)	46,600 (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2A상을 완료한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제 Q301의 기술 이전 기대감 여전. 아토피 치료제 전문회사인 '아나코'를 화이자가 52억 달러에 M&amp;A하면서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li> <li>- FDA로부터 Q203은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조건부허가를 받게 되면 Priority Review Voucher를 획득할 전망. 마지막으로 거래된 PRV의 가격은 3억5천만달러로 현재 시총을 감안할 때 bottom Value 매력 존재</li> </ul>
진성티이씨 (036890)	6,590 (+9.3)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아진산업 (013310)	11,350 (+8.1)	10,500 (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평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은 여전한 상황</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싸이맥스 (160980)	15,100 (+6.7)	14,150 (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li> <li>-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향후 삼성전자 외 중국 업체 등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 및 후공정 패키징 이송장비 등 제품 다변화에 주목</li> </ul>
베셀 (177350)	7,350 (+44.7)	5,079 (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 CEC-Panda, CSOT, Tianma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LCD In-Line 시스템 제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고객사들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li> <li>-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대형 LCD 투자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며,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베셀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가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마트 (139480)	159,500 (+1.6)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li> <li>-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li> </ul>				
씨엠에스에듀 (225330)	32,050 (+19.1)	26,900 (08/26)	56.8	10.7	8.9	2,244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li> <li>- 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li> <li>-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li> </ul>				
비아트론 (190510)	25,550 (-5.4)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li> <li>-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li> </ul>				
대상 (001680)	28,700 (-2.2)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li> <li>-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li> <li>-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SK머티리얼즈 (036490)	152,600 (+23.1)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41,950 (+4.0)	40,350 (04/22)	710	84	69	3,132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의류 OEM: 3Q16 Preview: 예상 하회, 수요 회복에 이목 집중

### ■ 3Q16 Preview: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컨센서스 하회 예상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의 영업이익은 각각 700억원(영업이익률 12.1%), 351억원(영업이익률 8.1%)으로 영원무역은 전년대비 8% 증익, 한세실업은 41% 감익이 예상된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각각 12%, 22% 하회할 전망이다. 매출액은 영원무역이 전년대비 17% 증가하나, 한세실업은 19% 감소할 전망이다. 양사의 3분기 OEM 부문 달러 매출 성장률은 각각 5%, -11%로 추정되며 3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대비 4.3% 하락했다. 영원무역은 완만한 오더 회복과 Scott 매출 기여로 외형 성장이 양호하고, 한세실업은 브랜드 사업 분할과 오더 부진 영향권이다. 수익성에서 양사 모두 원화 소폭 강세 영향이 부정적이고 어려운 영업 환경으로 인해 ASP 압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원무역은 3분기 Scott 영업 적자 축소로 인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한세는 높은 베이스, 오더 부진에 저수익 오더 수주,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예상을 대폭 하회하는 실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 ■ 수요 동향: 미주 패션업체 재고 조정 일단락과 겨울 의류 판매 동향이 관전 포인트

영원과 한세의 2016년 OEM 달러 오더 성장은 각각 6%, -4%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양사 모두 미주 의류 소비 부진과 이에 따른 재고 조정 영향권이다. 영원무역이 금년 유럽 회복 및 신규 바이어 확보로 외형 회복이 진행되었고 한세실업은 GAP 등 캐주얼 의류 시장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 시점은 캐파보다는 수요가 관건이다. 양사의 신규 바이어 확보나 제품 다각화 등 자체적인 요인보다 미 패션업체 실적 부진과 재고 조정이 2016년 실적 부진의 주요인이었다. 4분기 성수기 판매 동향과 이에 따른 오더 재개가 관전 포인트이며 최근 미주 도.소매 의류 재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 수익성 점검: 환율 베이스가 2016년 상반기까지 높다

3분기 원/달러 환율은 8분기만에 강세로 전환, 당사 예상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상반기까지 환율 베이스가 높다. 특히, 동남아 환율도 약세 피크 국면은 지났다. 면화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3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0% 상승했고 이에 따라 원재료 급락 시기의 판가-원가 스프레드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자체적인 증설 스케줄 등도 수익성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사 중 영원무역 실적이 외부 변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한세는 2017년 상반기까지 수익성에 있어 가시성이 낮다.

### ■ 업황 저점에서 영원무역 밸류에이션 매력, 한세 목표주가 35,000원으로 하향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의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4%, 12% 하향한다. 가장 주요한실적 변수는 수요 회복이다. 한세실업의 경우 수요 뿐 아니라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적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단,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의 12MF PER은 각각 10배, 12배 수준으로 경쟁업체인 중국, 대만 4사(Shenzhou, Eclat, Makalot, Feng Tay)의 2017년 평균 PER은 19배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외부 변수에 비탄력적이면서 M&A, OEM 사업 영역 확대 등으로 인해 완만한 실적 개선이 진행형인 영원무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3,000원(2017년 PER 16배, 글로벌 평균 대비 20% 할인)을 유지한다. 한세실업의 목표주가는 기존 40,000원에서 실적 추정 하향 변경에 따라 35,000원(12MF PER 16배)으로 하향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항공: 3Q16 Preview - 3사 모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

### ■ 사상 최고 수준의 3분기 실적 기대

상장 3개 항공사의 합산 3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205억원, 1,534억원으로 추정되며, 제주항공은 405억원으로 추정된다.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3% 늘어나는 것으로 여객과 화물이 동시에 호황이었던 2010년 3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1.2% 늘어나는 것으로 이 또한 2010년 3분기 이후 최대치다. 제주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1.5% 늘어나는 것이며 사상 최대치다.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장거리 노선 비중이 높아 작년 3분기에 메르스 피해가 적어 이익이 잘 나왔던 기저효과 때문이며, 제주항공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작년 3분기에 메르스 피해가 컸던 데다 정비비가 급증하며 실적이 부진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 ■ 3분기 키워드: 국제선 여객수요 호조세, 운임상승, 저유가

3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상 사상 최대치인 배경은 올해 3분기 성수기 여객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없었고, 저유가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늘 길 경쟁이 여전하지만 성수기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 성수기에 경쟁 부담이 잠깐이나마 사라진 느낌이다. 3분기 수요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한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권 판매를 줄여가며 대응한 결과 3분기에는 모든 항공사들의 국제선 평균 원화 운임(yield)도 2년 여 만에 다시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3사 모두 기대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둔 가운데,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며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대한항공의 3분기 유류비는 전년동기대비 1,403억원(19.1%) 줄어든 5,919억원으로 추정되며, 제주항공은 항공기 도입이 늘어나며 유류비가 7.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나,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이 작년 3분기 22%에서 올해 3분기에는 18%로 하락해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 사상 최대 이익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

항공 3사의 3분기 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비해 주가는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항공주가 '3분기 성수기 이익증가 기대감'을 수개월 전부터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고, 현 시점(가을)이 항공업 비수기여서 시장에서 주목 받기 어려운데다,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항공주 투자매력이 다소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에 유류비로 각각 2조 9,373억원, 1조 4,576억원을 지출했으며 제주항공은 1,432억원을 썼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항공유가는 배럴당 50.4달러이며, 최근 가격은 61달러다. 내년 평균 항공유가를 61달러로 가정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비 부담이 각각 4,615억원, 2,678억원 늘어나며(다른 조건은 같다고 가정), 그 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된다(유가상승 부담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유가가 65달러를 넘어설 때 1단계가 부과된다). 현재 유가가 저점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내년 항공업을 전망하는데 아직 큰 부담요인은 아니나 주식투자 관점에서는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 ■ 주가, 단기 모멘텀 찾기 어려워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중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만큼 당분간 주가상승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최근 반등한 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4분기부터 유가가 전년동기대비 다시 상승하게 되므로 운임이 의미 있게 오르지 않는 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워진다. 항공주에 투자하려면 지금부터는 수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주는 매년 상반기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특징이 있는데다, 레벨업 된 유가에도 양호한 수요에 힘입어 꾸준한 이익이 나온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앞으로 수 개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 대한항공(003490, 매수/TP 42,000원) : 양호한 영업이익, 아쉬운 영업외비용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5%, 45.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추정하는 영업이익(4,205억원)은 2010년 3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상장되어 있는 항공 3사 중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는데, 이는 작년 3분기에 항공사들 중에서 메르스 피해가 가장 적어 이익이 잘 나왔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메르스 피해가 가장 적었던 이유는 다른 항공사들보다 장거리 노선 비중(50%)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외수지 부문에서는 외화환산이익과 한진해운 손상차손 및 지분법 손실 금액을 챙겨 봐야 한다. 3분기 중에 원/달러 환율이 4.4% 하락하며 89억달러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4,500억원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분기 중 한진해운 주가가 하락한 부분과 추정이 어려운 한진해운관련 지분법 손실액과 손상차손 추가인식 여부 등이 분기 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항공은 상반기에만 한진해운 관련 4,33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며, 앞으로 최대 3,761억원을 더 반영해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여금 형태로 6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시장에 “한진해운 추가 지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주가가 늘어나는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불확실성은 올해 중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2,000원을 유지한다(목표주가는 손상차손 예상액을 모두 반영해 추정한 17년 BPS에 지금과 영업환경이 유사했던 10년의 PBR(1.4배)을 적용해 구한 것으로 8월 31일 제시).

### ■ 제주항공(089590, 매수/TP 38,000원) : 운임(yield)이 오른 것에 주목해야

우리가 추정하는 제주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4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5% 늘어나는 것이다. 상장되어 있는 항공 3사 중 제주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는 작년 3분기에 메르스 영향으로 매출이 부진했던 데다 정비비가 급증해 실적이 저조했던 기저효과에, 올해 3분기 장사를 잘 한 영향이 더해진 때문이다. 올해 3분기에 장사를 잘 했다는 것은 수송실적과 운임 모두 좋았다는 의미다. 제주항공은 이번 3분기 항공수요가 매우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저가 항공권(탑승 수개월 전부터 대폭 할인 판매하는 항공권)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전략이 적중했다. 지난 1년 동안 저비용항공사들의 수송객 수가 급증한 것에 비해 운임 하락폭이 커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이익이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이번에는 시장 기대치를 여유 있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 제주항공의 국제선 yield(1km 당 평균 수입)는 65.5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8.5% 상승한 것이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할증료가 반영됐던 2014년 3분기(6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항공사들간의 모객 경쟁이 치열해 운임을 올려 받기 쉽지 않은 시장 여건에서 이뤄낸 이 같은 결과는 높이 살 만 하다. 관건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비수기에 운임이 하락하는 것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다. 경쟁 항공사 대비 높은 운임이 한 두 분기 더 지속된다면 주가 premium 요인이 될 것이다.

### ■ 아시아나항공(020560, 중립): 이익 급증하나, 유상증자 등 영업외 이슈 부담 있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호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최근 주가가 액면가를 밀돌고 있어 진행 중인 유상증자(주식 수 17% 증가, 유상증자 유입대금 1,662억원)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20%)에 대해 청약률이 ‘0%’를 기록하는 등 향후 일정을 더 지켜봐야 하며,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당분간 주가가 호실적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0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5(수)	10/6(목)	10/7(금)	10/10(월)	10/11(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3.00	2,065.30	2,053.80	2,056.82	2,031.93	
	등락폭	-1.86	12.3	-11.5	3.02	-24.89	
	등락종목	상승(상한)	347(2)	348(2)	199(2)	451(0)	391(0)
		하락(하한)	446(0)	448(0)	611(0)	357(0)	408(0)
	ADR	97.26	94.02	86.63	88.97	90.91	
	이격도	10 일	100.03	100.49	99.91	100.04	98.91
		20 일	100.43	100.97	100.42	100.59	99.45
	투자심리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92	338	422	315	340
	거래대금	(십억 원)	4,330	5,358	5,403	4,667	5,128
코스닥	코스닥지수	685.44	684.33	675.9	674.74	670.64	
	등락폭	-0.44	-1.11	-8.43	-1.16	-4.1	
	등락종목	상승(상한)	532(3)	542(3)	298(2)	472(2)	410(1)
		하락(하한)	540(0)	533(0)	797(0)	602(0)	673(0)
	ADR	99.23	99.08	97.88	97.74	97.17	
	이격도	10 일	99.98	99.73	98.63	98.66	98.30
		20 일	101.17	100.95	99.73	99.59	99.00
	투자심리	60	50	40	30	30	
	거래량	(백만주)	587	641	703	644	640
	거래대금	(십억원)	2,976	3,161	3,484	2,949	3,313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79.1	1,475.5	1,440.8	792.2	104.1	180.6	85.1	15.8	263.0	37.8
	매도	2,333.5	1,812.3	947.3	237.4	98.8	213.6	77.7	12.2	307.7	40.2
	순매수	-154.4	-336.7	493.5	554.9	5.3	-33.0	7.4	3.6	-44.7	-2.4
	10월 누계	-204.6	-71.6	232.6	470.2	-26.4	-149.2	102.0	-23.6	-140.3	43.6
	16년 누계	-5,496.7	9,709.7	-7,617.7	-1,669.1	681.1	-5,732.1	-896.9	-995.5	995.2	3,404.6
코스닥	매수	3,049.5	162.2	80.0	32.7	7.2	12.8	11.4	1.1	14.9	17.6
	매도	2,985.2	173.9	126.7	34.0	13.8	31.3	15.9	1.5	30.1	23.6
	순매수	64.3	-11.7	-46.6	-1.3	-6.6	-18.5	-4.6	-0.4	-15.2	-5.9
	10월 누계	156.1	77.1	-195.8	-39.0	-13.5	-71.0	-25.5	-2.7	-44.2	-37.5
	16년 누계	5,295.1	979.6	-4,336.6	-604.8	-287.0	-1,480.5	-638.6	-149.7	-1,176.2	-1,938.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58,537	전기전자	-28,881
기타금융업	7,153	서비스업	-12,118
화학	5,021	보험업	-7,328
KODEX 200	44,075	삼성전자	-32,447
KODEX 레버리지	10,398	삼성생명	-6,986
롯데케미칼	7,696	엔씨소프트	-3,764
SK이노베이션	7,315	CJ CGV	-3,341
TIGER 200	6,259	아모레퍼시픽	-3,07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도	
미분류	29,376	운수장비	-17,610		
은행	7,313	유통업	-14,295		
화학	5,677	서비스업	-9,432		
KBSTAR 200	12,912	LG화학	-6,850		
삼성전자	10,085	삼성물산	-6,257		
TIGER 200	9,753	현대모비스	-5,393		
롯데케미칼	9,748	엔씨소프트	-5,302		
SK이노베이션	9,336	현대차	-4,89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73,281	화학	-1,417
전기전자	4,828	철강금속	-749
유통업	905	서비스업	-659
KODEX 레버리지	46,469	KODEX 인버스	-1,454
TIGER 경기방어	9,834	CJ CGV	-1,026
TIGER 레버리지	6,264	금호석유	-959
TIGER 헬스케어	5,421	POSCO	-695
KODEX 200	4,515	대한전선	-54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1,973	서비스업	-8,897
건설업	9,631	운수창고	-2,331
기타금융업	6,275	유통업	-1,725
TIGER 200	8,590	아모레G	-3,560
SK하이닉스	5,124	삼성물산	-3,463
대림산업	3,505	현대모비스	-3,017
현대건설	3,299	엔씨소프트	-3,014
현대중공업	3,149	롯데케미칼	-2,581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38,692	기계	-5,152
미분류	79,924	운수창고	-2,032
화학	52,942	종이목재	-1,164
삼성전자	195,659	KODEX 레버리지	-82,634
KODEX 인버스	58,628	삼성물산	-14,796
KODEX 200선물인버스2X	46,230	엔씨소프트	-10,961
SK이노베이션	27,898	CJ CGV	-8,287
TIGER 200	23,106	KODEX 200	-5,904
TIGER 200선물인버스2X	19,795	삼성생명	-5,755
SK하이닉스	19,723	아모레G	-4,042
한국전력	18,233	농심	-3,749
POSCO	17,323	한진칼	-3,326
S-Oil	16,355	GKL	-3,03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도	
건설업	18,301	전기전자	-319,039		
유통업	14,792	전기가스	-35,580		
기타금융업	10,197	미분류	-34,389		
LG전자	36,181	삼성전자	-315,678		
삼성물산	19,452	한국전력	-34,348		
현대건설	12,539	TIGER 200	-23,770		
하나금융지주	9,194	SK이노베이션	-19,990		
현대중공업	9,092	SK하이닉스	-19,355		
신한지주	7,939	현대모비스	-13,914		
KODEX 인버스	6,346	KT&G	-11,018		
아모레G	6,096	NAVER	-10,052		
한국항공우주	6,047	LG화학	-10,025		
POSCO	5,126	LG디스플레이	-9,39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IT부품	509	계약	-8,718
디지털컨텐츠	56	의료,정밀기기	-1,696
농업	31	전문기술	-1,633
AP시스템	1,899	셀트리온	-4,492
슈피겐코리아	606	엠지메드	-1,292
뉴트리바이오텍	361	휴온스글로벌	-1,236
솔브레인	321	동국제약	-1,027
에코프로	281	뷰웍스	-877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음식료,담배	130	반도체	-189
미분류	83	화학	-137
전문기술	50	사업지원	-121
유비쿼스	165	엘오티베컴	-204
팜스토리	165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33
MDS테크	83	휴맥스	-129
웨이포트	83	모두투어	-121
SK머티리얼즈	67	큐리언트	-115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523	반도체	-2,020
기계,장비	214	계약	-1,426
통신장비	194	방송서비스	-1,167
컴투스	575	셀트리온	-1,630
휴메딕스	567	CJ E&M	-1,333
SKC코오롱PI	229	제이스텍	-752
넥스텐	225	손오공	-605
에코마케팅	198	파라다이스	-551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6,949	계약	-8,175
반도체	6,074	출판,매체복제	-8,083
IT부품	2,629	디지털컨텐츠	-3,109
CJ E&M	6,110	수산아이앤티	-4,534
AP시스템	3,471	셀트리온	-4,038
하이셀	3,156	미투온	-3,395
휴온스글로벌	1,356	카카오	-1,910
휴메딕스	977	보성파워텍	-1,827
SK머티리얼즈	902	바른손이앤에이	-1,663
이오테크닉스	830	대화계약	-1,542
에코프로	814	파라다이스	-1,497
텔콘	792	코미팜	-1,136
아이씨디	750	옵트론텍	-1,068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1,185	계약	-12,023
연구,개발	657	반도체	-9,357
종합건설	541	출판,매체복제	-6,652
바이넥스	1,247	셀트리온	-10,629
에코프로	1,167	수산아이앤티	-4,494
이테크건설	945	CJ E&M	-3,160
컴투스	867	미투온	-2,332
큐리언트	834	휴온스글로벌	-1,913
슈피겐코리아	737	웹스	-1,811
휴메딕스	543	파라다이스	-1,646
디엔에프	522	엠지메드	-1,373
쇼박스	519	손오공	-1,16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11	SKC코오롱PI	-1,165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6,949	계약	-8,175
반도체	6,074	출판,매체복제	-8,083
IT부품	2,629	디지털컨텐츠	-3,109
CJ E&M	6,110	수산아이앤티	-4,534
AP시스템	3,471	셀트리온	-4,038
하이셀	3,156	미투온	-3,395
휴온스글로벌	1,356	카카오	-1,910
휴메딕스	977	보성파워텍	-1,827
SK머티리얼즈	902	바른손이앤에이	-1,663
이오테크닉스	830	대화계약	-1,542
에코프로	814	파라다이스	-1,497
텔콘	792	코미팜	-1,136
아이씨디	750	옵트론텍	-1,068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34 일	비상교육	35 일
KTB투자증권	28 일	넥센타이어	26 일
한국가스공사	21 일	KPX케미칼	24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8 일	고려제강	21 일
현대증권	16 일	송원산업	18 일
QV 의료 TOP5 ETN	15 일	KB손해보험	16 일
KOSEF 200 선물	15 일	우진	15 일
동부하이텍	15 일	KPX그린케미칼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22 일	골프존	34 일
엘앤에프	15 일	리노공업	28 일
동진씨미켄	14 일	엔비에이치코리아	26 일
씨엠에스에듀	12 일	금화피에스시	22 일
제이브이엠	12 일	국순당	18 일
케이사인	10 일	원일특강	18 일
포스코켄텍	10 일	뉴트리바이오텍	17 일
피엔티	9 일	CJ E&M	1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67,654	삼성물산	111,316
삼성물산	137,329	LG전자	77,587
KODEX 인버스	62,035	아모레G	38,304
현대모비스	55,974	엔씨소프트	37,716
SK이노베이션	52,076	한국항공우주	28,277
현대중공업	51,933	현대중공업	26,185
LG디스플레이	43,918	현대건설	24,162
한국전력	43,689	TIGER 200	22,382

KOSDAQ			
기	관	외	국 인
카카오	6,007	CJ E&M	22,028
동진씨미켄	5,265	카카오	12,743
연우	3,653	뉴트리바이오텍	5,976
티씨케이	2,961	NICE평가정보	4,615
AP위성통신	2,589	AP시스템	4,319
제이스텍	1,902	메디투스	4,055
대원미디어	1,814	CJ오쇼핑	3,598
이오테크닉스	1,684	하이셀	3,29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52,942	7,518	60,460
건설업	32,492	18,301	50,793
기타금융업	39,668	10,197	49,866
KODEX 인버스	58,628	6,346	64,974
KODEX 200선물인버스2X	46,230	456	46,686
LG전자	9,568	36,181	45,748
현대건설	15,189	12,539	27,728
신한지주	15,790	7,939	23,729
POSCO	17,323	5,126	22,449
TIGER 200선물인버스2X	19,795	1,976	21,771
S-Oil	16,355	3,100	19,455
현대중공업	7,405	9,092	16,497
현대증권	12,781	2,969	15,749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연구,개발	657	946	1,603
종합건설	541	260	801
종이,목재	379	73	452
에코프로	1,167	814	1,981
휴메딕스	543	977	1,520
큐리언트	834	330	1,165
이테크건설	945	64	1,009
이오테크닉스	29	830	859
인트론바이오	479	380	859
연우	262	596	858
레고컴바이오	165	626	792
동화기업	393	349	742
뉴트리바이오텍	66	586	65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한전선	27 일	지투알	26 일
현대에이치씨엔	25 일	대양금속	24 일
대원화성	24 일	NHN엔터테인먼트	19 일
텔코웨어	17 일	현대미포조선	19 일
화신	17 일	한국가스공사	18 일
KB손해보험	16 일	동부제철	18 일
대한제당	16 일	맥쿼리인프라	15 일
신한 인버스 구리 선물 ETN(H)	15 일	인지컨트롤스	1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휴맥스홀딩스	44 일	하림홀딩스	37 일
대양전기공업	33 일	서연전자	28 일
NICE평가정보	27 일	에스디시스템	12 일
케이비제8호스팩	23 일	네오오토	11 일
대림제지	23 일	엠에스오토텍	11 일
한창산업	15 일	인탑스	11 일
아세아텍	15 일	크리스탈신소재	10 일
서한	15 일	아바텍	10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아모레퍼시픽	-81,670	삼성전자	-272,556
LG생활건강	-70,950	한국전력	-161,392
KODEX 레버리지	-56,830	LG화학	-63,198
현대차	-46,640	현대모비스	-60,173
엔씨소프트	-44,892	SK이노베이션	-48,339
LG화학	-44,679	SK텔레콤	-47,493
아모레G	-35,609	삼성카드	-29,047
CJ CGV	-30,223	LG디스플레이	-28,934

KOSDAQ			
기	관	외	국 인
미투온	-10,622	셀트리온	-12,611
셀트리온	-10,356	미투온	-9,950
CJ E&M	-9,335	컴투스	-4,829
인트론바이오	-7,605	파라다이스	-4,538
메디톡스	-7,408	수산아이앤티	-4,534
바이로메드	-6,450	셀루메드	-4,292
솔브레인	-5,796	휴젤	-3,061
원익IPS	-5,206	보성파워텍	-2,44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38,692	-319,039	-80,347
전기가스	20,433	-35,580	-15,147
의약품	4,002	-13,647	-9,645
KODEX 레버리지	-82,634	-8,134	-90,768
LG화학	-2,949	-10,025	-12,974
CJ CGV	-8,287	-1,698	-9,985
KODEX 200	-5,904	-571	-6,475
농심	-3,749	-1,199	-4,948
호텔신라	-2,938	-1,590	-4,528
두산인프라코어	-2,100	-2,171	-4,272
한진칼	-3,326	-637	-3,964
삼성전기	-2,378	-1,010	-3,388
삼성카드	-1,912	-1,304	-3,216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2,023	-8,175	-20,199
출판,매체복제	-6,652	-8,083	-14,735
의료,정밀기기	-2,556	-2,205	-4,761
셀트리온	-10,629	-4,038	-14,666
수산아이앤티	-4,494	-4,534	-9,028
미투온	-2,332	-3,395	-5,727
파라다이스	-1,646	-1,497	-3,143
웹스	-1,811	-271	-2,083
보성파워텍	0	-1,827	-1,828
손오공	-1,166	-487	-1,654
영우디에스피	-774	-874	-1,648
엠지메드	-1,373	-124	-1,497
뉴웍스	-658	-688	-1,34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8	29,538	
KB금융	456	17,815	
현대차	70	9,420	
삼성SDI	67	6,215	
현대모비스	21	6,000	
삼성전기	121	5,770	
현대중공업	37	5,571	
SK하이닉스	124	5,157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AP시스템	105	2,540	
메디텍스	5	2,325	
카카오	22	1,837	
바이로메드	14	1,507	
지엔코	227	1,463	
파라다이스	84	1,317	
파트론	140	1,242	
크리스탈	58	1,23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774	8,020,312	
NAVER	1,669	1,455,264	
SK하이닉스	31,407	1,297,106	
KB금융	29,928	1,173,160	
현대중공업	7,571	1,147,033	
LG전자	16,704	850,256	
KT&G	7,085	843,065	
현대차	6,284	838,957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117	2,452,690	
카카오	11,527	952,165	
바이로메드	2,358	245,040	
로엔	3,318	240,222	
컴투스	2,376	233,038	
메디텍스	419	181,056	
코미팜	3,768	163,358	
파라다이스	9,979	155,67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타금융업	8,152	증권	-8,538
의약품	3,032	건설업	-2,282
미분류	2,873	유통업	-1,902
KB금융	5,167	한화투자증권	-5,575
두산인프라코어	3,292	대우건설	-2,772
영진약품	2,656	신성솔라에너지	-2,170
SK하이닉스	2,554	SK증권	-1,317
TIGER 자동차금	1,972	동부증권	-1,226
하나금융지주	1,733	대우조선해양	-1,190
기아차	1,663	SK네트웍스	-1,044
신한지주	1,567	화승인더	-1,023
두산중공업	1,484	현대로템	-699
우리은행	1,354	한화생명	-663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3,846	IT부품	-998
미분류	265	인터넷	-944
종합건설	158	소프트웨어	-821
CMG제약	2,384	카카오	-835
셀루메드	1,575	차이나그레이트	-506
셀트리온	569	리노스	-443
에스앤씨엔진그룹	369	아가방컴퍼니	-428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80	위지트	-290
세종텔레콤	256	하림	-274
에스코넥	241	시노펙스	-255
크리스탈	239	국순당	-233
게임빌	229	케이사인	-222
휘닉스소재	213	토비스	-22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5(수)	10/6(목)	10/7(금)	10/10(월)	10/11(화)
외국인	9,709.7	-71.6	-250.9	-2.6	91.9	38.5	-42.0	-336.7
기관계	-7,617.7	232.6	322.7	-110.2	-147.3	-236.9	323.5	493.5
(투신)	-5,732.1	-149.2	-110.9	1.7	17.3	-53.3	-43.5	-33.0
(연기금)	1,323.1	-163.4	-171.5	10.5	-2.0	-33.0	-93.7	-53.4
(은행)	-995.5	-23.6	-9.3	3.8	-4.0	-7.7	-4.9	3.6
(보험)	681.1	-26.4	-43.7	-14.0	23.7	-53.1	-5.6	5.3
개인	-5,496.7	-204.6	-115.2	99.2	47.5	196.4	-304.0	-154.4
기타	3,404.6	43.6	43.4	13.6	7.8	2.0	22.4	-2.4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10(월)
KOSPI	2,011.3	1,915.6	1,961.3	2,054.9	2,053.0	2,065.3	2,053.8	2,056.8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418.4	22,747.3	24,286.6	21,767.4	21,837.5
(증감액)	-3,802.5	1,630.7	6,853.1	484.4	328.9	1,539.3	-2,519.2	70.1
(회전율)	29.9	34.0	28.8	35.2	32.1	35.1	40.8	34.9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221.6	742.3	1,396.8	-2,387.3	115.4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371.7	3,355.0	3,351.4	3,354.2	3,398.6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354.2	4,337.5	4,329.6	4,333.8	4,337.8
미수금	92.9	117.6	151.0	118.9	148.8	155.8	148.3	162.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30(금)	10/4(화)	10/5(수)	10/6(목)	10/7(금)
전체주식형	73,217	-7,686	-107	-57	-85	11	12	-44
(ex.ETF)		-6,838	-90	-52	-5	-6	-24	-55
국내주식형	55,830	-7,355	-89	-67	-94	26	18	-40
(ex.ETF)		-6,419	-72	-61	-14	9	-18	-50
해외주식형	17,386	-331	-18	9	8	-15	-7	-5
(ex.ETF)		-419	-18	9	8	-15	-7	-5
주식혼합형	8,151	-74	8	13	-1	-5	4	10
채권혼합형	28,315	-2,448	-379	-41	-106	27	-118	-182
채권형	110,911	21,628	-321	103	-132	-276	50	38
MMF	117,463	23,035	9,558	-4,241	150	1,820	2,983	4,60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5(수)	10/6(목)	10/7(금)	10/10(월)	10/11(화)
한국	8,551	-63	-223	-2	82	34	-38	-300
대만	13,184	188	-37	73	-57	-53	-	-
인도	7,764	254	162	98	54	10	-	-
인도네시아	2,731	108	84	-3	-6	-59	152	-
태국	3,850	65	30	31	-14	-17	28	-
남아공	-6,531	79	-51	-111	45	23	-8	-
필리핀	715	-37	-42	-7	-7	-5	-11	-12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0/5(수)	10/6(목)	10/7(금)	10/10(월)	10/11(화)
회사채 (AA-)	2.11	1.72	1.73	1.73	1.75	1.78
회사채 (BBB-)	8.06	7.80	7.81	7.82	7.83	7.87
국고채 (3년)	1.66	1.31	1.32	1.32	1.34	1.37
국고채 (5년)	1.81	1.32	1.34	1.34	1.38	1.44
국고채 (10년)	2.08	1.51	1.53	1.53	1.55	1.62
미 국채 (10년)	2.27	1.70	1.73	1.72	1.72	-
일 국채 (10년)	0.27	0.05	0.05	0.06	0.06	-
원/달러	1,172.50	1,113.70	1,112.20	1,115.50	1,108.40	1,120.40
원/100엔	972.63	1,076.66	1,070.14	1,081.44	1,070.71	1,082.31
엔/달러	120.55	103.44	103.93	103.15	103.52	103.52
달러/유로	1.09	1.11	1.11	1.12	1.12	1.12
DDR3 1Gb (1333MHz)	1.00	1.15	1.15	1.15	1.16	-
DDR3 2Gb (1333MHz)	1.13	1.16	1.17	1.20	1.23	-
NAND Flash 16Gb (MLC)	1.46	1.71	1.73	1.73	1.73	-
CRB 지수	176.81	188.78	188.54	189.32	191.29	-
LME 지수	2,217.9	2,439.1	2,431.8	2,436.0	2,465.1	-
BDI	478	869	915	921	922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9.83	50.44	49.81	51.35	-
금 (달러/온스)	1,060.00	1,269.40	1,254.50	1,258.75	1,259.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美> 9월 ISM 제조업지수 (51.5, 51.0, 49.4) 유럽> 9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2.6, 52.6, 52.6) 日> 9월 닛케이 PMI 제조업 (50.4, 50.4, 50.3) 3분기 대형 전체 산업 Capex (6.3%, 6.5%, 6.2%)		韓> 9월 CPI YoY (1.2%, 0.7%, 0.4%) 美> 8월 내구재 주문 (0.0%, 0.1%, 0.0%) 8월 제조업수주 (-0.2%, 0.2%, 1.9%) 8월 무역수지(십억 달러) (-39.2, -43, -39.5)		美> 9월 비농업부분고용지수 변동 (167k, 175k, 151k) 9월 실업률 (5.0%, 4.9%, 4.9%) 8월 도매 재고 MoM (-0.2%, -0.1%, -0.1%)
10	11	12	13	14
	日> 8월 경상수지(십억 엔) (2000.8, 1502.7, 1,938.2)	韓> 9월 실업률 (n/a, 3.8%, 3.8%) 日> 8월 핵심기계수주 QoQ (n/a, -4.6%, 4.9%) 유럽> 8월 산업생산 MoM (n/a, 1.5%, -1.1%)	韓> <b>금융통화위원회</b> <b>(n/a, 1.25%, 1.25%)</b>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53, 249) <b>9월 FOMC 회의록 발표</b>	美>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4%, -0.3%) 9월 PPI 최종수요 MoM (n/a, 0.2%, 0.0%) <b>연준 옐런 연설(15일)</b> 中> 9월 CPI YoY (n/a, 1.6%, 1.3%) 9월 PPI YoY (n/a, -0.3%, -0.8%) 日> 9월 PPI YoY (n/a, -3.2%, -3.6%) 실적발표> 美 제이피모간체이스 월스파고 씨티그룹
17	18	19	20	21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4%)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5%) 유럽> 9월 CPI YoY (n/a, n/a, 0.4%)	美> 9월 CPI MoM (n/a, 0.3%, 0.2%) 실적발표> LG 화학	美>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70, 1,142) 中> 3분기 GDP YoY (n/a, 6.7%, 6.7%) 9월 광공업생산 YoY (n/a, 6.4%, 6.3%)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3%) 실적발표> 우리은행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기준주택매매(백만) (n/a, 5.40, 5.33) 9월 선행지수 (n/a, 0.2%, -0.2%) <b>연준 Beige Book 발표</b> 유럽> <b>ECB 기준금리</b> 실적발표> 신한지주, KB금융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n/a, n/a, -8.2) 실적발표> 하나금융지주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